

심양시 11211

1983. 5-

• 멀리 내다보고 산다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더라도

생활주변에서

박 영 숙

기장 ·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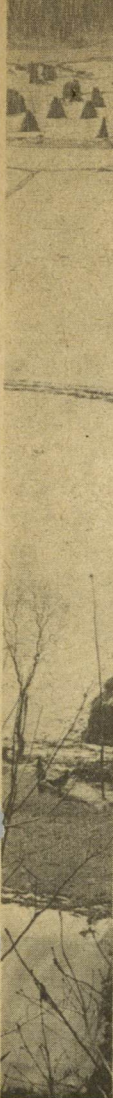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과거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멀리 내다 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멀리 내다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조석지변이 될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 절망과 체념을 넘어서서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오늘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그러한 사



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휘말려서 깊은 생각 없이 그럭저럭 지나거나 아니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어느새 그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상업주의의 농간으로 잘못된 우리들의 소비태도의 단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편이」라는 이름의 아편과 사탕에 우리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다.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어떠한 값을 지불하는 것도 꺼리낌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갖어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편리한 것과 유익한 것의 구분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날 무심코 열어본 아이들의 서랍 속에서도 발견한다. 필요한 물건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경우 그것을 애써 찾는 수고를 하기 보다 몇푼이 안된다는 이유에서 새 것을 사는 편을 택한 나머지 서랍 속에는 많은 물건이 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업주의는 같은 기능의 물건의 겉모양을 다양하게 하므로 소비성을 자극해서 오늘에 와서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소비벽이 말이 아니다. 인제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아쉬워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 습득물 처리가 아주 골치거리라는 말도 들려 오고 있다.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겠지만 포장지의 문제이다. 종이는 종이대로 많이 쓰면 그만큼의 나무가 잘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만큼 자라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무가 없는 세상이 되면 노아홍수가 우리를 삼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비닐의 경우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물건이 땅 속에 끝없이 묻히게 되는 경우 우리의 식량을

편이라는 이름의 아편과 사탕에 우리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다.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어떠한 값을 지불하는 것도 꺼리낌이 없다.

생산해야 하는 농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래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포장에 위한 대금을 따로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소비풍조가 한정되어 있는 지구의 자원을 바닥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 지구를 쓰레기로 뒤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드디어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멀지 않아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기에 이르렀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비단 소비태도에서 만이 아니다.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오늘의 인구문제를 아랑곳 하지 않는 태도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에서 이긴 또는 이긴 확률이 높은 소수자들을 위한 문제제기에 불과하고 그보다 수적으로 몇 배나 더 되는 보통 젊은이들의 장래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본위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입장에서 아니면 강자와 기득권자의 논리에 의해

우지좌지 되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들은 무기력한 나머지 자칫 절망과 체념으로 주저 앉기가 쉽다. 그리고 선하고 진실하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들을 냉소조차 하게 되고 적당히 살아 가려는 중병에 우리는 걸리게 된다. 그 병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독일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두 마리의 쥐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허우적거리다가 체념해 버린 나머지 그만 우유에 빠져 죽어버리고 다른 한 마리는 끝내 자기의 생명을 포기 하지않고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그가 가진 네 발로 헤엄을 친 결과로 그 우유가 응고되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통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생명을 건졌다는 것이다. 끝까지 체념을 모르는 강인한 삶, 그것이 새로운 환경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날 생활주변에서 멀리 내다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체념을 몰랐던 또 한 마리의 쥐처럼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이다.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석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집불 사람이 없는 단독주택 살림이라 일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인 가정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아주머니를 구해서 살림을 맡기고 있었다. 온지 얼마되지도 않아 그 아

주머니는 갑자기 맹장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집 주부는 절근하면서 까지 병원에서 밤샘하며 간호도 하였고 수술에 필요했던 일체 비용도 다 담당했다.

며칠이 앓되는 어느 날 그 아주머니는 간교한 방법으로 월급봉투를 비롯한 많은 것을 훔쳐 도망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물건을 잃은 아쉬움보다 그에 대한 믿음에 배신당한 이들 부부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 뿐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매일

펴보는 신문에서 들려오는 소문에서도 읽고 듣고 있다. 그래서 칠혹과 같은 암흑을 경험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러한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또한 우리들은 알게 된다.

어느 작은 분식점에서 목격한 일이다. 한 구석에 초췌한 서양남자와 한 여인이 마주 앉아 통만두를 먹고 있는 주변에서 50대 후반의 별로 교육도 받은 흔적이 없어 보이는 여주인이 하는 말소리가 가게가 원체 작아서 또한 구석에 앉은 우리에게도 들려왔다. 내용인 즉은 여주인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사람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지갑을 놓고 갔기에 찾으러 오겠지 하고 기다렸으나 일주일의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퍼 보았더니 외국인의 여권과 함께 미화 3천여 불과 상당액수의 환

화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여주인은 그것을 잃어버린 여행자의 입장이·생각할수록 딱하게 여겨져서 날이면 날마다 여권사진의 얼굴의 외국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수염 때문에 곧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드디어 지갑주인을 찾았다고 그 여주인은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 외국인은 돈이 한푼도 없어서 같은 비행기에 탔던 인연으로 알게 된 한국여인에게 본국에 가서 갚기로 하고 빌린 돈으로 여권이라도 찾을 양으로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자기가 다닌 여러 곳을 더듬고 있던 차에 뜻 밖에 지갑을 돌려주는 고마운 사람 앞에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광경을 본 것이다.

이 여주인의 한 일은 분명히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인 불빛이었다. 그것은 작은 불빛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불빛은 희망의 상징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데 충분한 불빛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꺾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굳건한 자세는 멀리 내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에서 우리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갖었던 굉장한 신앙이었다고 하면서 이 신앙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런데 오늘의 우리 민족이 쉽게 체념하고, 그래서 무능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는 「하늘이 무너져도」라는 위기의식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치 숙명론자 처럼 현실에 주저 앉아서 되어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믿고 산 결과로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그들의 백절불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멀리 내다보고 산 사람들의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

*전화상담환영

장식및교회행사

◎ 인조대리석제품으로 제단장식
(강대상용 화분대 및 수반·전화 받침대, 꽃병·탁자·기타선물용 제품)

◎ 행사에
상패·임직패·취임패·공로패·현수막·우승기·트로피·컵·뺨치·메달·명패·교패·벽걸이(주울·조각)간판·열쇠고리·꽃리본·페난트·명찰 아크릴공예품.

대로휘장

전화 762-4222, 742-3589

대표 김진경